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5호 [루게 제 25073호] 주제 104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 참석하시여 연설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계속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 참석하시여 역사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을 10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카타르의 알 자제라 위성 TV방송은 조선에서 로동당 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가 거행되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참석하시여 연설하셨다, 그이께서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다고 선언하셨다고 보도하였다.

아랍주권국인방통신 스카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인민생활향상과 인민권중성에 대해 강조하셨다.

김일성평화상공에 마치고와 나, 북을 형성한 조선로동당과 크와 470이라는 수자를 새기면서 군용기기를 비행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칭송하며 수많은 군중들이 평양을 지

나갔다.

우간다신문 《더 뉴 비전》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미국이 일으키는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다는데 역점을 두시었다, 그의 연설은 수많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메리코신문 《엘 유니베르살》은 조선은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통하여 나라건반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력을 보여주었다, 무조건적 단속을 시위하였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타이산신문 《망코크 보스트》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참석하시여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인민생활향상과 인민권중성에 대해 강조하셨다.

경이 전하였다.

행사 전 기간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언제나 김정은령도자께로 집중되어있었다.

군중시위참가자들이 주석단 앞을 지나면서 자기의 령도자를 우러러 보며 존 모슨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세계는 북조선이 자기 사상의 힘을 어떻게 과시해야 하는지 잘 알고있는 나라라는것을 목격하였다.

라오스통신, 사우디 아라비아 통신, 알 리아드, 방글라데시 신문 《데일리 스타》, 《방글라데시 투데이》, 《뉴스 투데이》, 《데일리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에른 데이 데일리》, 《루에트 신문》, 《루에트 타임》, 《몽골 TV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로마니아의 미디어파스트통신, 아제르바이잔의 아제르바이잔 뉴스, 터키의 신문 《디 프레스》, ORF TV방송, 도이칠란드 방송, 노르웨이 방송, 스페인 방송, 그리스 방송, 이탈리아 방송, 남아프리카의 소리방송과 ETV방송, 나이지리아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 리드 트롬페 지도 경애하는 현수님의 연설을 전문 또는 요지로 전하였다.

본사기자

베루신문들인 《더아리오 우노》, 《에부 21》, 《엘 프라테르노》, 미국의 VOA방송, 인터넷 뉴스 《야우》, 브라질인터넷 TV 《TV 플라》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현수님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동영상들을 모시었다.

또한 칠레공산당(프롤레타리아트)과 민주공화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트롬페지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또한 칠레공산당(프롤레타리아트)과 민주공화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트롬페지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2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를 찾은 그들은 혁명영도의 전기간 독창적인 청년중시정치를 펼쳐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정에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애의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변영을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실히 받드는 영원한 백두정준으로 삶을 빛내어갈 혁명적의에 넘쳐있었다.

경의를 표시하였다.

영생홀에서 그들은 청년들을 존엄높은 백두산청년강국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고 온갖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상이 눈여겨보는 영웅청년들의 창조자들로 자라날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세상에 남긴 유산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믿음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백두산태양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믿음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김정일장군회고 베닌전국위원회 결성

베닌혁명군정위원회는 15일 코코투에서 결성되었다.

결정식에는 베닌의 주체사상연구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명서 등도 채택되었다.

베닌혁명군정위원회는 15일 코코투에서 결성되었다.

결정식에는 베닌의 주체사상연구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명서 등도 채택되었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변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

나라의 위력한 대상설비생산기지인 동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중심의 불바퀴가 세차게 돌고있다.

종합된 자재에 의하면 동성의 로동계급이 지난 5월까지 연간인민경제계획을 101.5%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변혁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초부터 치열한 돌격전을 벌이며 정전기계단식발전소 건설과 공작, 화학, 제철공업인민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각종 대상설비를 기민하게 생산하여 보내주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살려 투쟁하여야 합니다.》

동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중포로에 제시된 과업을 힘있게 완수하고 그 관철에 떨쳐나선 변혁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상설비생산 한걸음도 늦추지 않았다.

정전기계단식발전소 건설과 공작,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과제를 기민하게 완수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각종 대상설비를 기민하게 생산하여 보내주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동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동성기계련합기업소 당, 행정, 기술인민부들은 대상설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당창건 70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 로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신선전, 화신선동을 참신하게 펼쳐나서 대외의 앞장서서 성과를 올려나갔다. 기업소구내외 기계공업을 팽방 내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에서 일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랑을 안고 생산의 선봉정열을 떨치신 선군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일꾼들은 대상설비생산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체계있게 하여 일지러가 폭풍 내기 하였다. 부모의 일꾼들은 로력조직과 자재보장, 교차생산조직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문에서 전진조직을 짜고들면서 공중포로, 직장간 면제를 건립하고 소재 생산을 앞세워 가공부문에 제때에 보충해주며 그 질을 높이고 조립기

완수

일을 앞당기기 위한 작업조직을 강하게 예나갔다.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담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새로운 기술혁신, 합리화인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실천적으로 시공을 절약하고 원가를 줄였다. 기업소구내외 기계공업을 팽방 내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에서 일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랑을 안고 생산의 선봉정열을 떨치신 선군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일꾼들은 대상설비생산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체계있게 하여 일지러가 폭풍 내기 하였다. 부모의 일꾼들은 로력조직과 자재보장, 교차생산조직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문에서 전진조직을 짜고들면서 공중포로, 직장간 면제를 건립하고 소재 생산을 앞세워 가공부문에 제때에 보충해주며 그 질을 높이고 조립기

1단계공사를 앞당겨 끝낼 기세로

해산-삼지연철길건설장에서

해산-삼지연철길건설장에 총동원된 기사가 세차게 나돌고있다.

종합된 자재에 의하면 10월 중순까지 로반공사는 76.2%, 소구조물공사는 68.6%를 완수하였다.

철길건설장에서 전제지도를 현상한 소식은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돌격대원들의 결사투쟁의 정신과 애국적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백두산혁명전적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자면 교통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해산-삼지연철길건설 현장취재에서는 올해말까지 1 단계공사에 대한 로반과 철도, 차굴, 용벽공사를 앞당겨 다그치며 소구조물공사를 완전히 끝내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령과 수단을 모으고있었다.

현장취재일꾼들은 땅이 얼기

전제 습식공사를 끝내는데 모를 막고 시공지도를 치밀하게 짜고 돌면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겨울에도 공사를 중단없이 진행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았다.

러들에서는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직관선, 예술선등을 참신하게 펼쳐 전투장터에서 새로운 조선 속도장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 온 건설자위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였다.

황해남도려단 돌격대원들이 2개의 차굴을 관통한데 이어 로반과 용벽, 소구조물공사를 힘있게 벌여나가는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성진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변방건설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철길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충해 주기 위하여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는 소식이 돌격대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특파기자 전 철주

가방용천생산의 국산화에 적극 기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넓히는데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교육과 신발, 화장품, 가방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학생복원생산을 힘있게 전진시켜서 학생복원생산을 위한 기구, 공작, 화학, 제철공업인민부문에 필요한 각종 대상설비를 기민하게 생산하여 보내주는 위훈을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을 받들어 자라나는 세 세대들에게 교육과 학용품을 보장해주는 것을 당과 국가의 변함없는 인민적 의무로, 중대사로 내세우고 계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송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현직 수공업공정종합대학의 일꾼들은 즉시에 공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은 현장에서 해당 부문 일꾼들,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과 협의를 거듭하면서 현지 모습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그리고 능력있는 교원, 연구사들로 연구력량을 모았고 과학연구활동을 벌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올해 정초부터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달려나간 수십명의 대학교원, 연구사들이 가방

용천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갔다.

대학의 연구집단은 가방용천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고리인 터머를 원을 염색하는 고온고압로라염색기를 자체의 힘으로 설계제작하기 위한 목표를 내걸고 탐구의 나날을 이어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여나갔다.

기어이 우리의 힘으로 최첨단을 돌파해나갈 민족자존의 정신과 배짱을 안고 교원, 연구사들은 공작기구들과 로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협력을 합쳐가면서 여러차례의 설계제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설계도면을 다시 완성하면서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설계를 마치고, 중대사로 내세우고 계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송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현직 수공업공정종합대학의 일꾼들은 즉시에 공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은 현장에서 해당 부문 일꾼들,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과 협의를 거듭하면서 현지 모습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그리고 능력있는 교원, 연구사들로 연구력량을 모았고 과학연구활동을 벌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올해 정초부터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달려나간 수십명의 대학교원, 연구사들이 가방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3호대형원추형과재와 5000t메식방사, 장거리메트론베어 《나선》을 일떠세워 철강생산능력을 수백만t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무산의 로동계급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계속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여나가고있다.

생선현장에 깊이 침투하여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대중을 위훈장조로 떠밀어주는 일꾼들의 전투적인 일꾼들이 그대로 철강생산으로 이어지고있다.

련합기업소사무부서에서는 생산장정의 중요한 방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기술협회의 형태를 조직하여 기술혁신성과들이 생산에 제때에 도입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기술자들이 많은

과학기술을 앞세워 생산을 다그친다

무산 광산 련합 기업소에서

산직업양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꾼들은 전투현장을에서 로동자, 기술자들과 무를 나누어주고 힘찬 문제들을 제 때에 풀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생선현장에 깊이 침투하여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대중을 위훈장조로 떠밀어주는 일꾼들의 전투적인 일꾼들이 그대로 철강생산으로 이어지고있다.

련합기업소사무부서에서는 생산장정의 중요한 방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기술협회의 형태를 조직하여 기술혁신성과들이 생산에 제때에 도입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기술자들이 많은

공무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장정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서로의 집단적협력을 합쳐 전문공장에서 가공하여오던 마광기대치자를 분공장의 현존비와 기술로 가공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막도콘베어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대량원추형과재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로원분공장에서도 발파로를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창안도입하여 철강생산능력을 높이고있다.

무산의 로동계급은 철강생산능력을 높여 올해전투를 빛나게 계속한 만만한 투지에 넘쳐 총열적열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글 특파기자 김 은 남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열의안고 낱알털기를 와닥닥 끝내자

과학적인 라산을 앞세워 찾아낸 방법

당장 70%를 뜻짓게 맞이 한 기쁨안고 기세차게 내달리고 있는 확산군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요즘 낱알털기에서 펼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벼가을을 짧은 기간에 끝내며 이어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이 성과는 올해 농사결속을 잘 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향을 찾아내고 완강하게 내민 확산군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대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떨기 위하여 힘쓰라 한다.》

군에서는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여 올해 농사결속을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길 목표를 내세웠다.

처음 이 목표가 세워졌을 때 일부 일군들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보다 보장조건이 좋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특히 전기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낱알털기를 제 기일에 끝낼 수 없다는 논의가 나왔다.

물론 이 경우를 예견하여 가

확산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을견이를 앞두고 모든 탈곡기를 그 어떤 조건에서도 가동할 수 있게 개조해놓았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기계를 가지고서는 높이 세운 전루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조선로동당당지 70%를 뜻짓게 맞이 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받아안고 일군들은 걱정해 넘쳐 높이 세운 목표를 무조건 수행해나갈 결의를 가슴 불태웠다. 당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 작전해도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갈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을 깊이 새긴 일군들은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를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에서 대하였다.

그러하여 이 사업에서는 조건타협이란 있을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한사람같이 떨쳐나 그 방도를 찾아 사색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과학적으로 라산하고 짜고들면 적은 기쁨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낱알털기를 제 기일에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도 환히 알고있는것도 그들이기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포전에 나가 이동수리를 하게 하면 수리기일을 앞당길수 있었다. 빈틈없는 작전에 따라 이동수리조는 방향별로 나가 탈곡기만이 아니라 불전기제들에 대한 수리정비도 맡아하였다. 즉시는 이 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포전에서 이동수리를 하기 때문에 탈곡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그것을 수리지기까지 사고가지 않아도 되었고 수리시간이 훨씬 단축되어 많은 낱알을 털수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과 슬기를 총괄받시러 강성병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군을 일떠세우려는 데 대한 견해는 원수님의 연설을 자자구구 새길수록 책임일군들은 이 문제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넓은 협동농장에서 낱알털기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뜻밖의 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군을 일떠세우려는 데 대한 견해는 원수님의 연설을 자자구구 새길수록 책임일군들은 이 문제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넓은 협동농장에서 낱알털기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뜻밖의 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군을 일떠세우려는 데 대한 견해는 원수님의 연설을 자자구구 새길수록 책임일군들은 이 문제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천군 화산협동농장에서

이런 조건에서 지난해처럼 작전하면 11월 중순까지 한달동안 일제계획을 세워야 하였다. 그렇게 하면 적지 않은 낱알이 허실될수 있는것은 물론 다음해농사차비에 도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가을걷이를 적기에 하여 낱알의 허실을 없애려는것은 당의 요구이다. 일군들은 이 현실을 놓고 집체적으로 들어갔다.

여러가지 합리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대중속에서 제기된 견해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벼가을과 낱알털기일제계획을 한달이 아니라 보름으로 줄여 세울수 있다는 결론이 떨어졌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올해는 분조수를 늘리면서 대규모를 작제 하였다. 그리고 모든 분조들에서 소형탈곡기를 마련하였기때문에 가을걷이작기는 늦어졌지만 올해농사를 짧은 기간에 계속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마련되었다. 우선 포전에서 낱알털기를 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벼단을 실어들이는 공정이 거의 없었기때문에 많은 로력이 절약되는것은 물론 낱알의 허실도 그만큼 없어진다는 결론이 떨어졌다.

다음은 통가리치기공정을 없앨수 있다. 이 공정을 없애자면 벼를 가을에 눌러놓았다가 다음날 낱알털기를 할수 있게 단을 작제 묶어야 한다. 2-3일후 그것을 탈곡기별로 낱

라다 낱알을 털면 되므로 통가리를 지지 않아도 된다. 통가리치기공정이 없어지니 낱알의 허실을 막을수 있다. 올해에는 또한 분조마다 저울을 마련하였으므로 낱알을 떠는속도 현저하게 상승할수 있다. 결과 지난해보다 일제계획을 열흘이상 줄여 세울수 있다는 답이 나왔다.

다음은 소형탈곡기리용문제이다. 대체로 소형탈곡기 한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중반의 낱알을 털수 있다. 그런데 분조들에서 탈곡기 한대를 놓고 모든 농장원들이 낱알털기를 할수 없다. 특히 벼가을은 며칠이면 끝나므로 그때부터는 탈곡기가동물을 더 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탈곡기들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교대별로 밤에도 낱알털기를 하도록 하자. 그러면 낱알털기일제계획을 며칠 더 줄일수 있다. 결과 제6, 14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작업반들에서 올해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일제계획을 지난해처럼 한달이 아니라 보름 동안으로 세우고 긴장한 전투를 벌였다.

현실은 주어진 조건을 혁신적 안목으로 보며 창조적지혜를 합쳐 방도를 찾아 실천할때 낱알의 허실을 없애면서도 올해농사를 짧은 기간에 계속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창길

한 알도 허실없이

한 알도 허실없이

협산군 수부협동농장에서 종합탈곡기와 이동식탈곡기를 배합하여 낱알털기실적을 올리고 있다.

당의 뜻대로 낱알허실을 없애야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절명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이동식탈곡기를 포전에 설치하고 낱알털기를 하도록 하였다.

작업반들에 내려간 농장일군들은 포전에서 밤수리를 펴놓고 그후에 이동식탈곡기를 설치한 다음 낱알을 털도록 하였다. 또한 하루작업이 끝나면 농장원들 모두가 동원되어 탈곡장들에 흠뻑 낱알을 작업도 허실없이 털

본사기자 김창길

관점부러 바로서야 실천이 따라선다

관점부러 바로서야 실천이 따라선다

책임을 지겠다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것까지도 그쳐 스쳐보내지 않는다. 청남구 룡복농장 일군들의 일보가 바로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분일조를 가지고 일해나 가야 합니다.》

어느날 포전에서 나가 작황상태를 알아보던 이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논으로 보기에 비숫해보여도 천양무제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것이다.

청남구 룡복농장에서

관점부러 바로서야 실천이 따라선다

파져보니 원인은 벼의 수분함량이 서로 다른데 있지 않게 관계되어있다. 농장일군들은 이것을 그저 스쳐보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벼의 수분함량이 기준보다 적으면 이삭부피가 작아지고 반대로 많으면 벼알들이 이삭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벼단수리들을 같은 형태와 높이로 포전에 쌓아놓는다면 벼단온도와 낱알털기라는 관점에서 이 실패를 따라세우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작업반들에서는 벼의 수분함량이 알맞춤해지도록 통가리치기를 적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높이를 가진 《>모양의 벼단가리대를 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지고 즉시 실천으로 옮겨졌다. 결과 당의 높은 뜻대로 낱알허실을 막을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당정책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에 놓여있다는것을 뼈에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한 대책을 실천에 적극 펴내려는 이 일군들의 일본색은 긍정할만 한 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일

달리한 교대작업조직

달리한 교대작업조직

정형을 분석해보면 탈곡기의 능률도 같고 가동시간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실적은 달랐다. 실적이 떨어진 작업반에서의 원인을 따져보니 농장원들이 자기 마력을 최대한 내어 일할수 있게 조건이 보장되어있지 않았다. 일군들이 낱알털기의 구체적인 공정에 맞게 라산을 잘하여 농장원들 두기나 마력을 내어 펴수 있게 작업조직을 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당에서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맞게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교대작업조직

교대작업조직

로, 창발적으로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일군들은 토의를 거듭하고 작업반, 분조들에 내려가 농장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그 과정에 찾아낸 방도는 교대작업조직을 지난 시기와 달리하는것이였다.

즉 작업반에서 3개의 작업조로 낱알털기를 하는것이였다. 지난 시기에에는 대체로 2개의 작업조로 일하였다. 이렇게 하니 교대작업반에는 다소 작업능률과 질이 높아졌지만 후

본사기자 김창길



한 알도 허실없이

최후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화산식선동 활발

최후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화산식선동 활발

각지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

각지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이 대조전투장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최후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화산식선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대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시다.》

용진군 구양협동농장 제10작업반 1분조 선동원 리정순동무는 지난 27년간 언제나 이 선동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려일으키기 위한 화산식선동을 힘있게 벌려 해마다 분조안에 달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불려일으키는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심장깊이 새긴 그는 5대교양자본들을 카드식, 걸기식, 병풍식으로 갖추어 놓고 영웅공정법에 따르는 정황선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모든 분조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올해에도 화산식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분조원들이 불려일으키는 선동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선동원들이 불려일으키는 선동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올해에도 화산식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분조원들이 불려일으키는 선동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화산식선동 활발

화산식선동 활발

원칙의 정으로 돌파하여 혁신자로 이끄는 분조를 서로 돕고 키우는 화곡한 집단으로 되게 하였다.

합동제분공장 제본1작업반 선동원 정경주동무는 지난 19년 동안 선동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작업반원들이 때두산설세위인들에게 대한 불려는 충성을 안고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적극 떨쳐나서고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그는 때두산설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자본을 비롯한 각종 선동자료 1만 3800여권을 갖추어놓고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과 정부하여 작업반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선동활동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 있다.

그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작업반원들과 함께 공작구대에 많은 꽃병이나 수필과 과일나무들을 정성껏 만들고 가꾸었으며 합리적인 계분생산공정들을 새로 창안 도입하여 해마다 작업반안에 달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이 2중 3대혁명훈장을 기를 쟁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는 돌파용 사람이 없는 전쟁로병부부의 천령이 되어 10여년간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보아주며 병원에 입원한 작업반원에게 자기의 피도 수혈해주면서 병치료를 도와준것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다.

각지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의 적극적인 선동활동으로 하여 최후승리를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스스로를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생산정상화의 돌파구를 열기까지

생산정상화의 돌파구를 열기까지

광포오리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수도 없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사상이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문제를 토론하였다.

그들은 조건이 불리하다고 앞서 수를 세우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사상이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을 책임진 일군들의 태도와 일본색이 아니라라고 생각하였다. 방도를 모색하던 일군들은 난관을 뚫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 나갔다. 일군들은 우선 생산의 첫공정인 알곡수거기계를 개조할수 있는 기술을 조사하고 알곡수거기계의 온도가도 높았지만

일군들은 공장의 기술자들이 합동수리동맹대의 교민,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쳐 무동력증기보일러설계와 알곡수거기계를 개조할수 있는 기술을 조사하고 알곡수거기계의 온도가도 높았지만

본사기자 김창길

축산도 마음먹기 탓이었다

축산도 마음먹기 탓이었다

그는 결심하였다.

(고리형순환선체계를 받아들여 우리 분조에서도 많은 집짐승을 기르자.)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는 김정희, 김은옥동무들과 함께 대담하게 집짐승사육을 새로 짓기로 하였다. 농장원들과 힘을 합쳐 집짐승사육관리를 짜

본사기자 김창길

15의 단배를 생산하여 알곡 먹이비율을 낮추면서 많은 고기를 생산하였다.

15의 단배를 생산하여 알곡 먹이비율을 낮추면서 많은 고기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늘 이북 비육분조에서는 해마다 많은 새끼돼지를 생산하면서 수삼마리의 비육돼지를 오리와 닭, 계사나와 염소를 길러 농장원들의 살림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특교기자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당 과 인 민, 시 대 가 바 라 는 참 된 총 복

최장군기초식품공장은 인민 생활향상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들에게 실질로 덕을 주는 공장, 군인의 인민들이 자랑하는 공장으로 소문났다.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에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는 원장, 간장생산계획을 해마다 매달 지표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뜻깊은 명절들이면 주민세대들에게 차례로 마련한 고기원장, 고추장들과 병간장, 병식초, 여러가지 산나물절임들을 안겨주어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 주고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안락이 멋있는 조련된 공장원의 원로까지, 후방부터는 내추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든지 꾸러웠다. 창자마다, 창고마다에는 강병이, 병을 비롯한 원로, 자제들이 가득차있고 집집마다에서 패치와 패치, 오리, 토끼들이 울적거리고 있다. 자제창고들에는 언제나 3년분이상의 각종 자제, 부속품들이 가득차있어 보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자그마한 최장군기초식품공장이 소위처럼 자랑할만 한 건물을 이룩한 것은 수평의 유훈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인민들에게 잘 갈라도록 하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흘리며 밭이 넓도록 뛰고 또 뛰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이 혁명의 지휘소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 최장군기초식품공장 지대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2006년 5월 초였다. 생산건물과 생산설비, 로터리성과 경영활동 등 모든것이 웅장한 수준에 오르지 못한 공장을 돌아보는 그의 가슴은 미어지지는 않았다.

저도모든 주먹을 불끈 쥐는 그의 권에 주저않은 기초식품공장을 동무에게 맡긴다고 하던 군대책임공장의 말이 울려왔다.

《동무는 지배인입니다. 동무에게 군대 인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식품공장의 운영이 달려있습니다.》

지배인이라는 말이 김일성동무의 비리에 깊이 새겨졌다.

지배인, 우리의 사회주의를 수평의 사상과 유념으로 지키고 빛내이는 수평의 유훈관철전, 당정책행위권의 기수가 되어야 할 일이었다. 더는 다음엔 지배인에게 제수실을 못하는 공장을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것이 바로 회귀할수 없는 자기의 의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당과 국가앞에 한계 단위를 책임진 일꾼의 사상관철이 바로 배겨야 설비와 자금, 건물 등 모든것이 마련되고 기초식품도 나오며 당정책을 관철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 김일성동무는 지배인이 되어 첫 사업으로 정문에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라는 구호를 쓰여세웠다.

신입지배인이 자기의 심장에 조야박박 땀을 흘려 한자한 새기는 애국의 구호를 종업원들도 자기의 심장에 뜨겁게 쓰여박았다.

이 구호를 새기고 김일성동무는 하루도 타일을 붙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새기고 김일성동무는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원장, 간장, 기생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타일을 붙이 설비들을 새로 제작설치하고 다공어치보 보일러와 2층짜리 문화휴생건물, 공구기기를 건설하는것 등 모든것을 공장자체로 해야 하는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과제를 띠었다.

공정일과 종업원들은 모두가 떨치나서 이른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높이 세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돌진해나갔다.

남양이 공장의 면모가 눈에 띄이게 달라져간 어느날 작업의 휴식참에 김일성동무는 초급당 부서 박문규동무와 마주앉았다. 생산공정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제, 설비비율을 보여주며 그것

들을 구하기 위해 떠나려고 한다는 지배인에게서 초급당에서는 오빠도록 눈물을 때지 못했다. 남과 달을 거둬들이 새러새로운 일관을 벌여놓고 드세게 밀고나가라 몸시 수척해진 지배인이었다.

《사실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현대 내가 한걸음 주춤거리면 우리 공장이 당정책관철에서 남들보다 열걸음, 백걸음 뒤떨어질 것이 어 더 철수가 있어야지요. 난 지배인이 아닙니까.》

지배인, 당과 국가가 맡겨준 공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책임진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일념으로 가슴끓이는 김일성동무의 열광에서 초급당에서는 기어 이 공장을 당과 인민, 시대의 요구대로 인민들에게 덕을 보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읽을수 있었다.

일꾼들은 말뚝부나 조련타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성한 사업의 열정을 지니고 대중을 이끄는 수평의 유훈관철전, 당정책행위권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일성동무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삶의 좌우명이었다.

이렇게 심장을 끓여 김일성동무는 출장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개진사업을 억척스럽게 하고나갔다. 초급당에서는 비롯한 일꾼들, 종업원들과 손바닥이 부르도록 합마를 휘두르기도 하였으며 기술자, 기능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새로운 생산설비 비도면을 놓고 열띤 토론속에 새벽을 맞기도 했다. 그러다가 작업이 필요할 설비, 자제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편한 몸으로 먼길을 수 없이 다녀왔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부를 버리는 종업원들을 위해 인내와 함께 후방물자를 가지고나와 그들의 기세와 열의를 북돋아주기도 하였다. 앓는 몸도 아팠없이 밤낮으로 뛰고 또 뛰는 그에게 도대체 휴식이란 말은

도저히 통하지 않았다.

생산건물의 개건과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여러가지 설비들과 기계들이 창안제작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방의 한 기초식품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당시 집한 김일성동무는 즉시 그 공장을 비롯한 전국 소문난 기초식품공장에 대한 참관을 받기했다.

참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김일성동무는 격정에 잠겨 원장생 산공정에서부터 자조종종제제를 도입하려는 의향을 내비치었다.

이런 그를 바라보는 책임기사 박정남동무와 장악업장장 김향속동무는 비롯한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새것에 대해 민감하고 전격적이 강한 지배인이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했다.

늘 당정책관철을 위해 사색을 깊이하고 일단 결심한것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그대로 실천하고아하는 지배인이었다.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실천행동으로 종업원들을 이끄는 김일성동무의 불같은 열정과 완강한 의지와 노력은 3층짜리 생산건물과 2층짜리 휴생건물, 식단과 휴식실, 목욕탕과 미발실, 미용실, 탁자상과 배자상, 야외 휴식장소에 뜨겁게 짓들었고 생산공정에 받아들인 통환생산선계와 기발하게 착상제작된 진동기계들과 전동출발, 그외의 각종, 원장자제물자장치를 비롯한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실현하게 하였다. 그리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 무전화, 무공 화를 실현하는데서 큰공로를 내건 한 배제척기와 병조각기, 두부생산설비와 남대공구 및 자동설비, 탄산소다투입기, 자동복합투입기와 같은 생산설비들과 불수간판과 불수간판류 등, 세면도, 목욕과 같은 수많은 자제들을 마련하게 하였다.

하지만 김일성동무에게는 만족이 없었다.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장제작 및 현대

화공사가 눈에 띄이게 진척될수록 김일성동무의 머리속에서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기초식품공장을 정상화해나갈 생각이 무르익어갔다.

생산건물과 생산공정의 개건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인 기초식품을 떨치지 않고 넉넉히 생산공급하는데 있는것이였다.

사실 기초식품생산에 드는 소금과 식탄과 같은 원료, 자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며 그 량도 적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철도연선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산골 회창까지 그 모든것을 날라들이는것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그 모든것을 김일성동무는 거나 도맡아다시 하였다. 수운 거늘음에도, 한여름의 무더위속에서도 그는 자제인수원이 되어 평양과 신의주, 함흥과 청진을 비롯한 전국각지를 다니며 원로, 자제와 설비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느라 끼니를 번쩍 때가 드문했고 그것으로 내내 몸을 괴롭히는 병이 도져서 사경에서 해메인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몇해전 마가를 어느날 다음해 생산에 필요한 소금소송을 조직한 김일성동무는 어느때와 같이 작업복차림으로 사무실을 갔고있었다.

그때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선 초급당일꾼이 그의 앞을 막았다. 며칠째 심한 고열속에서도 생산을 지휘했던 지배인이었다.

《지배인동무는 너무합니다. 벌써 몇번에나, 당원들은 당조직과 동지들의 충고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간 김일성동무는 지도모르게 흐려져서 정했다. 지배인의 건강을 두고 무연히도 마음 쓰며 위하는 초급당일꾼이었고 동지들이었다. 하지만 당과 국가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못한 당원을 어떻게 지배인이라고 할수 있었는가.

《그말씀입니다. 비서동무, 그런데 저야 지배인이 아닙니다. 기초식품공장을 정상화하여 당과 국가의



김 일 성 동 무 (왼쪽에서 세번째)

인민적시책이 배제물마다에 더 잘 가닿게 하는것이 내가 당조직으로부터 받은 당직분공입니다.》

항상 당의 신임과 기대를 잊지 않고 삶의 순간순간 당정책에 대한 신뢰심과 인민을 위해 서러면 배를 쥐고 한몸을 바쳐 갈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끓이는 바로 혁명적 오로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강그러 바치신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이었다.

에 오리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정리 받들며 기어이 관철하려고 심장을 불태웠기에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올수 있었고 움직이기도 힘든

인의 주민세대들에 공급하여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8월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저자 제의 힘으로 주지않았던 공장을 일으켜세워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김일성동무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는 온 나라가 알게 해주셨으며 오늘날은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시었다.

이 나날 그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대회와 전국경제동맹대회 그리고 조선로동당창건 70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었다.

수평의 유훈관철을 모든 사업과 생활의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묶어주고 한몸 다 바쳐 결사관철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행복을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적극 기여하는 이런 일꾼이 당과 인민, 시대가 바라는 인민의 참된 총복, 우리 시대 애국자가 아니겠는가.

회창장이 자랑하는 김일성동무의 삶과 투쟁기쁨은 사회주의본래를 지키고 로동당원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서 우리 일꾼들이 달고있는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관건적인가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한다.

글 및 사진 김시기자 김시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김수산대양공전을 찾아 헬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대양공전을 찾아 21일 헬 동 용이아 총정치국 부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헬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이 경의를 표시 하였다.

대표단원들은 헬남인민의 반미구국전쟁을 적극 도와주고 조 조인과 헬남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엔 불멸의 공헌을

제 손으로 가꾸어가는 행복의 열매

함주군 련포협동농장 축산작업반원들

비곗다. 풍과 고기를 바꾸려는것은 당의 정책이다.

작업반장 박광범동무를 비롯한 이곳 축산작업반원들은 지난 여름여름간 우리 당의 축산정책을 심장에 새기고 이악한 기운을 가진 가을에 기다리던 함주군 련포협동농장 축산작업반원들의 수확의 기쁨은 계절에 구애되지 않는다. 한것은 며칠이 멀다하게 어미돼지들이 새끼 돼지들을 번이 낳는 것이다.

얼마전에도 어미돼지 한마리가 16마리의 새끼를 낳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축산작업반원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과 람만이

죽 물었다. 어느날 축산과 관련된 잡지를 한장두장 뒤지던 박광범동무는 버릴이 돼지먹이로 될수 있다는 자로를 찾게 되었다.

여러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그는 자기 고장에 흔한 버릴이 돼지 먹이로 가능하다는 과학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닭 먹이를 적게 쓰면서도 얼마든지 많은 돼지를 기를수 있었다.

신심에 넘친 박광범동무와 작업반원들은 큰단배에서식장도 만들고 여러 정도의 비경지를 일구었으며 먹이공급설비도 차려놓으면서 축산태도를 하나 하나 마련해나갔다.

그뿐만 아니라, 축산작업반에서는 가족나무들을 리용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의 동상에

신경외과학 평양의학과학도론회와 전국 도대향군중체 육대회-15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년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1일 신경외과학 평양의학과학도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이 땅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고 인간사회의 대화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보전제도를 마련해 주신 철세위원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였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기념

전국의 학과 학도론회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0돐기념 전국의 학과 학도론회가 20일과 21일 평양에서 있었다.

도론회는 내과학, 외과학, 고 려의학, 기초의학, 약학, 위생 방역학분과로 나누어 진행되 었다.

도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보건의사업과 의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하여 주신 강령적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보건부문의 교련,

전통의학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토론회 진행

전통의학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토론회가 20일과 2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도론회에서는 강하국보건장, 보건부인 일꾼들과 푸남 케트라팔 생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소장, 스페인 파울 조스트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 대표부원들, 넬라, 부란, 스리랑카, 타이, 인디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도론회에서는 먼저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전통의학이 여러 나라에서 전통의학을 국가보건 체계에 통합시키고 그 효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는 데 대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이 인민 보건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으며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는 풍부

인민무력부장이 헬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을 만났다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박영식동지는 21일 의평방문하여 헬 동 용이아 총정치국 부주임을 단장으로 하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신 천 박 들 관 참 관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21일 신천박물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먼저 사색어머니묘와 백두대원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천군에 기여하여 집중도 낮을 불릴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귀족같은 살육탄 행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박물관의 여러 도상들과 화약고, 전 신천군방공포 등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천박물관은 사람들에게 침략자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원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피의 교훈을 깊이 새겨주는 중요한 장소이다.

이제 전진시 작과들과 살인 용기들은 미제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칠 끔찍한 참상들은 그 투쟁을 찾아볼수 없으며 승냥이 미제의 이러한 야수적탄행자료들은 참관자들의 분노를 격양시키고있다.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소 소장 일행이 떠났다

전통의학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토론회에 참가하였던 푸남 케트라팔 생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사

헬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헬 동 용이아 총정치국 부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헬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이 21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을 진정 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원들이 서있었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헬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가 주악되

감보자특명전권대사 친 선 모 임 마 련

감보자특명전권대사 62명을 즈음하여 올 셋째와 두 조 감보자 왕국 특명전권대사가 21일 대사에서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재미동포대표단이 떠났다

윤경삼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친선합의대표단, 조 김갑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

